지 상 법 석

사바세계 극락 만들어요"

"이웃은 또다른 나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쁘게 해야지요"

유엄선사의 말을 듣고 나자 비로소 이고는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다한 말로써가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가르침을 준 유엄선사에게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증오는 곧 그 사람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오른다든지 호흡이 거칠어지는가 하면 눈도 충혈되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찰 귀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단 화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성을 잃기 십상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거친 욕도 하고, 심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나찰이나 야차 같은 귀신들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분노로 일렁이고, 욕심으로 한없이 요동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야차요, 나찰인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분노와 욕심이 맘껏 채워지지 않아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달아 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져 괴로우니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말 한마디일지라도 평상시의 행동들도 항상 바르게 선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안애어(和顔愛語)란 말이 있습니다.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씨로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화한 표정은 몸으로 짓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말씨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잘 다스림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한 호수는 사물을 본래 모습 그대로 또렷이 비추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삶도 평온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결이 일렁이듯 마음에 탐진치 삼독심이 생겨나면 더이상 삶은 행복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쁜 말, 이간하는 말을 좋아 하여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모든 악을 짓게 된다."

〈화엄경〉의 한 귀절입니다. 농담이 진담 된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나쁜 말을 하여 쓸데없이 악업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 친한 친구 사이니까 이해를 하려니 여기고 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간은 장난으로 서로 거친 말을 주고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긴 오해는 또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눈덩이 불어나듯 커져 끝내는 우정을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더러 장난 삼아 욕지거리를 하는 이들도 봅니다. 다소의 위트를 섞어 짓궂게 해대는 그런 말들이 어느새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릇이 없다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면 이 역시 크게 잘못된 일임에 분명합니다.

〈보살본업경〉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구를 만들지는 말라.
차라리 바른 말을 해서 고통을 만들지언정
그릇된 말을 해서 즐거움을 얻지 말라."

항상 명심해 들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우리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댓가는 언제고 반드시 치루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대 말 한마디인들 섣불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우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혹 화가 나거나 짜증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잘 참아 스스로 나찰로 떨어지고, 지옥을 겪지 않도록 항상 애써야겠습니다. 화안애어(和顔愛語)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실천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찬탄(讚歎)'입니다. 몸가짐을 밝게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삶 가운데 항상 찬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탄은 맹목적인 추앙과 찬양이 아닙니다. 찬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과 모든 자연 환경에 더한 겸손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찬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만스럽고 자기본위의 삶을 살뿐 이웃과 자연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중생계를 지옥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생계를 극락으로 가꾸길 발원한 부처님의 제자들이니 늘 찬탄하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찬탄도 생활 속의 수행일 수 있습니다. 찬탄하는 삶은 즐겁습니다.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즐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찬탄해야 하겠습니까. 제불보살님을 찬탄하고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생을 찬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합니다.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지 감사해야 할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찬탄으로 감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온 몸이 원만하게 갖춰진 것도 사계절이 순조롭게 변화해 가는 것도 우리는 찬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첫마디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날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바꿔 봅시다. 찬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하루를 맞았으니 참으로 좋은 아침인데 어찌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깝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법(佛法) 지키며 선업만 짓겠습니다"라고 말해 봅시다. 불보살님을 찬탄하며 내 삶의 바른길을 뚫어나가는 이 한귀절의 말로 여러분의 삶은 무한히 즐거워 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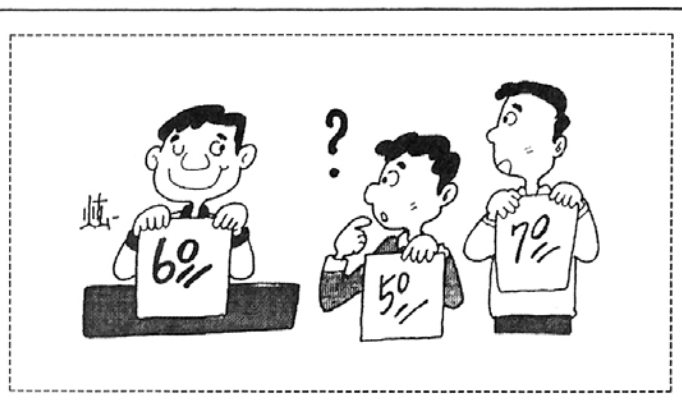
저는 오래전부터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재소자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에게도 늘 '좋은 업은 좋은 업을 낳고 나쁜 업은 다시 나쁜 업을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나쁜 업 하나씩을 짓고 교도소라는 공간에 들어 온 사람들이지만 그중에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내일을 위해 찬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업을 씻어내는 선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 제불보살에게 찬탄의 감사를 아끼지 않는 그들은 이미 새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찬탄해야 합니다. 내 이웃은 또다른 나입니다. 이웃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 이웃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웃의 삶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을 찬탄하며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환하고 즐거운 빛으로 남을 대하고 정과 사랑이 담긴 말로 대화하고 찬탄으로 겸양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바계는 즐거운 땅, 극락이 될 것입니다.

"제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업만 짓겠습니다" 찬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 새 삶의 주인공 됩니다

'身口意 다스림' 깨달음 얻기위한 수행 첫걸음 분노일어나 이성 잃은 모습 나찰 귀신과 같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1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8)

시고공중무색…

거시세계 법칙 실제아닌 평균값 현상 보이는 세계 진리와 다른 환상에 불과

지금까지 현대물리학의 입장에서 반야심경이 설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물리학적 물질관이 심경을 그대로 뒷받침한다고 하였는데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가지 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현대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시적(微視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시적(巨視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사실 경험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고양이를 상자속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봐도 삶과 죽음이 반씩 섞인 고양이를 본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될 수 있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립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미시적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거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다. 물론 거시적 세계에서는 태양이나 지구같은 별이 진공에서 생성되는 법도 없고 소멸되는 법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보다 더 본질적이다.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적 법칙과 원리로써 미시적 세계도 설명할 수 있고 거시적 세계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거시적 세계를 잘 설명하는 고전역학으로는 원자의 세계나 소립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논리로써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중성이 미시적 세계에서는 나타나지만 거시적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오관으로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개의 파동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거시적 세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밝고 어두운 무늬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우리 눈으로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점의 크기가 대략 0.1mm라고 할때 0.1mm의 폭은 밝고 다른 0.1mm의 폭은 어둡다는 식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명·암이 교차되는 띠로 보이지만 0.1mm의 폭에 100개의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반복되어 있다면 우리 눈은 이 중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고 평균적인 값에 해당하는 희미하게 밝은 무늬를 보게된다. 그렇다. 미시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거시적 세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평균값에 해당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승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평균값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다. 학생들이 받은 성적의 평균을 말할 때 100명은 50점 나머지 100명이 70점이라면 평균점수는 60점이 되는데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누구도 받은 적이 없다. 학생들은 50점과 70점만 실제로 받았는데 외부에 발표할 때는 60점이라고 발표한다. 우리가 보는 거시적 세계란 이 거시적 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미시적 세계의 현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타내 보이는 평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거시적 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시적 세계의 현상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이 평균치들은 일정한 법칙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 평균치들이 보여주는 법칙이 바로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고전역학의 법칙들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다.

진리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시고공중무색…"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즉시색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색(色)이 없다고 경은 설하는 것이다. "시고공중무색(是故空中無色)…"이것은 거시적 세계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시적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색(色)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우주마저 진공에서 나왔다면 그대로 무색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대 원 불 교 대 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서울불교산악회 동참안내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불심을 키워가는 불자들의 모임이 「대한불교산악회」로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구축함에 서울지역에 산재한 불교산악회 연합모임을 결성코저 하오니 뜻있는 단체와 일반 법우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 불교산행모임 및 개인
◇연 락 처 : 서울불교산악회(가칭)

금강메아리 : 554-4449 김대원
불이산우법회 : 556-0678 유재근

※ 부산불교산악회 : (051)464-2020
대구불교산악회 : (053)743-2554
성남불교산악회 : (0342)46-3871
광주불교산악회 : (062)375-7633